

우리말 중 한자차용 실태 고찰

- 중국어의 한자차용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 석 흥
(동국대학교)

1. 들어가는 말

한자는 소리를 주요 서사대상으로 하는 음소문자와는 달리 형태와 의미의 연관성에 따라 개념을 나타내는 표의성 문자이다. 한자의 이러한 표의적인 특징은 형태소의 의미 표시뿐만 아니라 이음절·다음절 단어의 형성에 있어 매우 강한 조어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말 내에서 자생한 한자어를 통해서도 잘 살펴볼 수 있다.

최근에 우리말¹⁾ 언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용 캠페인·공보·공모·안내를 비롯하여 상업용 광고·상호²⁾ 등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 언어 환경에서 우리

-
- 1) 본고에서의 ‘우리말’은 우리말 입말뿐만 아니라 글말을 함께 지칭하는 개념이다. 또 문자체계와 관련된 기술에 있어 다른 문자체계와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글은 ‘한글’로 직접 칭하였다.
 - 2) 우리말 중에서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리는 일’이라는 의미로는 ‘광고’라는 단어가 있고, 또 ‘광고’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advertising’이 라틴어 중 ‘주의를 끌다’라는 뜻의 ‘ad verter’에서 기원한 것인 만큼(이회복 2008:17), 언중들의 주의를 끄는 이러한 모든 행위를 ‘광고’라 칭할 수 있다. 다만 실제의 언어생활에서는 ‘광고’가 상업용 광고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고에서는 캠페인·공보·공모·안내·상업용 광고·상호 등 대중을 대상으로 한 언어 전달 행위 모두를 ‘알림’으로 통칭하고,

말 형태소나 단어와 동음 혹은 유사음의 한자를 빌어 이 한자가 가지는 의미로써 원래의 형태소 또는 단어의 의미를 대체하는 현상이 자주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한자의 차용은 알림에 있어서 주의를 끌고 해석의 노력을 통해 관련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케 하는 등 알림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운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말 중에 이미 영어·일본어·프랑스어 등 기타 외국어에서 유래한 기존의 외래어가 범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자까지 혼용됨으로써 올바른 우리말 사용의 저해 요인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말 중 한자차용과 관련한 각종 사례들에 대해 문자·음운·의미 등의 측면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더불어 한자차용이 우리말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써 한자 및 한자어 사용과 우리말 사용과의 현실적 상관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면서³⁾, 한자의 오·남용과 한자어의 무분별한 조어에 따른 우리말 오염 방지하기 위한 언어정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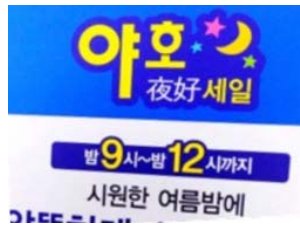
II. 한자차용 개요

‘한자차용’이라 함은 의미가 다른 동음 혹은 유사음의 한자를 빌어 원래의 언어단위를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形·音·義 결합체라는 한자의 특징을 활용하여 기존의 단어·형태소 혹은 일부 음절을 이것과 발음이 같거나 유사한 특징의 한자로 대체하는 것이 바로 한자차용이다. 고대 중국어로 작성된 고대문헌에서 자주 보이는 가차나 통가가⁴⁾ 이에 해당하는

상업용 광고를 특지할 경우에는 ‘광고’라 별도로 칭하였다.

- 3) 본고는 한글 전용론과 국한문 혼용론처럼 우리말 중의 한자어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 중 한자차용 현상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한자 표기 관련 문제는 논외로 한다.
- 4) 가차와 통가는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가차는 해당 문자가 생성되기 전 해당 문자가 없어(本無其字) 부득이하게 다른 문자의 발음만을 빌려 개념을 표기하는 방식이고, 통가는 이미 해당 음의 문자가 있음에도(本有其字) 다른 문자를 빌리는 방식이다. 다만 가차와 통가 모두 음운차용의 원리를 운용했다는 측면에서 이들 둘을 묶어 ‘音借’라 칭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문자를 적는 방식을 ‘音借法’이라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이러한 한자차용은 우리말 중에 있어서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중국어와 우리말에서의 한자차용은 동음 혹은 유사음의 한자를 활용한다는 기존의 문자 운용 측면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지만, 중국어에서의 가차나 통가는 일반적으로 한자의 의미는 고려치 않고 발음만을 빌리는 것에 비해, 우리말의 한자차용은 한자의 표의적 성질에 근거하여 특정의 의미 표시에 한자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우리말에서의 한자차용은 음운에서의 동일 혹은 유사성과 함께 의미표현상의 重義性(ambiguity)을⁵⁾ 함께 추구하는 음운·의미의 이중차용이라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1(좌)>는 이음절의 우리말 감탄사 ‘야호’를 ‘夜’와 ‘好’라는 동음의 두 한자로 대체하였는데, 이는 심야 할인 판매를 고객들에게 안내하면서 밤(夜)에 상품을 구매하면 많은 장점(好)이 있으며, 이로써 감탄사 ‘야호’를 낼 수 있을 만큼 즐거운 일이 될 것이라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또, <그림1(우)>에서는 ‘愛say’와 같이 외래어 ‘에세이’의 첫음절⁶⁾ ‘에’를 유사음의 한자 ‘愛’를 차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림1(우)>를 통해 공모하는 에세이의 주요 주제가 지하철 이용과 관련한 승객들의 미담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기도 하다.



부르기도 한다(張玉金2001:172).

- 5) 본고에서의 중의성은 단어의 중의성뿐만 아니라 형태소의 중의성도 함께 겸하는 개념이다. 그 이유는 단음절 형태소이면서 단음절 단어였던 고대의 한자 운용 및 활용 전통이 현재까지도 조어 측면에 있어서 여전히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6) 본문의 외래어의 표기 및 음절 산정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외래어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림1〉 한자 차용의 사례

앞에서와 같이 한자차용에 사용된 한자는 ‘차용한자’라 일컬을 수 있겠는데, 차용한자는 문자 유희의 차원을 넘어 특정 의미 표현을 목적으로 하여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자차용의 주체별로 그 사례들을 열거해 보면 아래 <표1>과 같다.

차 용 주 체	사 례
일 반 기 업	기발한 銅話로 1등을 접수하라, Thank油, 米남미너
관 공 서	動트는 동해, 사랑海요 영덕, 일어서自, 더할수록 행복합니多
문화·예술계	He(喜)-story, 늦은 후愛, 新 들림, 오월愛
교육 기관	개인정보 Lock & 樂
출 판	慢慢한 중국어 첫걸음
신문·방송	검찰 출두한 만사兄통, 다함께 車車車, 독도 野
개인자영업	남毛를 고민 남 毛르게 감춰라, 다락방多樂房 화로구이
개인자율제작	女보세요, 空ZONE, 美위美위

〈표1〉 사회 각 분야별 한자차용 사례

<표1>에서와 같이 한자차용은 공기업, 관공서, 문화·예술계, 교육기관, 신문·방송 등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자영업 종사자 및 일반 개인의 한자차용 사례로 적잖게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공적 단체의 한자차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⁷⁾

한자 차용은 부단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일반 언중의 한자차용 실

7) 개인의 한자차용 사례는 최근 인터넷상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인터넷의 영향력이 나날이 커져가고, 또 이로써 한자차용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터넷에서의 한자차용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태 분석과 아울러, 이것이 우리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는 신문·방송이나 간판·홍보 포스터 등의 가두 전시물과 같이 언어 대중들에게 쉽게 노출된 곳에서 발견한 한자차용 사례 263개를 대상으로 하여, 한자차용의 표기 방식, 음운 및 의미표시 대상, 의미표시 방식 및 특징 등을 유형화 하고, 이를 근거로 한자차용의 원인과 아울러 문제점들을 함께 분석해보았다.

Ⅲ. 한자차용의 표기 방식

한자차용에서는 한자를 우리말 중에서 어떤 형식으로 노출시키는가에 따라 대략 다음과 같이 네 유형의 표기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우리말과의 혼용이다. 혼용은 우리말 단어 혹은 문장 중에 차용한자를 직접 노출시켜 우리말과 함께 섞어 쓰는 표기 방식이다. 아래 [1]·[2]·[3]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 혼용의 방식은 한글과는 이질적인 문자 형태로써 언중의 주의를 유도함과 동시에, 난이도가 낮은 상용의 한자를 운용함으로써 한자차용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한층 더 부각시키고 있다.

[1] “亞! 경기”(『○○일보』 기사 제목)

[2] “同行 同幸”(○○은행 신입행원 채용 공고문)

[3] “미래 없고 자부심도 없고... ‘空大’된工大”(『○○일보』 2010.12.28.)

둘째, 附記의 방식이다. 부기는 괄호 안에 한글 또는 한자를 보조표기수단으로 써넣는 방식이다. 부기에는 [4]·[5]와 같이 차용한자를 괄호 안에 기입하거나, [6]과 같이 한자를 먼저 표기한 후 우리말 발음을 괄호 안에 써넣는 두 유형이 있다. 이 방식은 주위의 유도나 의미의 강조 외에도 [4]에서와 같이 우리말 의미와 한자의 의미가 서로 다를 경우 해당 의미를 한정할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또 이 방식은 [6]과 같이 난이도가 높은 한자를 차용할 때⁸⁾ 운용되는 경우가 많다.

- [4] “다(多)드림 이웃나눔 봉사활동” (『○○신문』 기사 제목)
- [5] “He(喜)-story, 흔적과 기억의 재구성” (사진작가 ○○○ 개인 사진전 포스터)
- [6] “渦人(와인) FESTIVAL” (○○백화점 와인 판촉 광고)

셋째, 併記의 방식이다. 병기는 한자를 괄호 없이 한글 옆에 나란히 위치시키는 표기 방식이다. 병기는 부기와 마찬가지로 차용한자와 우리말이 동시에 표기됨으로써 한자차용이 의도하는 의미 전달에 도움을 주고 있다.

- [7] “100세동안百歲童顏” (실비용품 판매점)
- [8] “공부와락樂” (입시 사교육 업체 광고)
- [9] “대한민국 세미래稅美來가 만들어갑니다” (국세청 성실 납세 캠페인)

넷째, 의미 보충 방식이다. 이것은 차용한자 뒤에 해당 의미를 풀어 기재해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아래의 [10]·[11]과 같이 차용한자의 조합에 의해 형성된 단어의 의미를 차용한자의 의미상 결합 관계에 근거하여 의미를 풀어 주거나, [12]와 같이 개별 한자의 音義를 명시하여 한자차용의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어주고 있다.

- [10] “骨頭波網(뼈와 머릿속까지 시원해지는 물결로 기운이 솟다)” (수입 파인애플 광고)
- [11] “연세여우麗友(아름다운 친구)치과” (치과 상호)
- [12] “아아니불 落떨어질락 죽” (요식업체가 입시철에 선보인 죽 이름)

8) [6]에서 ‘소용돌이’를 뜻하는 ‘渦’는 ‘와인’의 첫음절을 표시하는 것 외에도, 와인을 마시기 전에 잔을 돌려 잔 안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하는 동작인 스월링(Swirling)의 의미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IV. 한자차용의 음운 표시

한자차용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차용한자와 차용 대상 언어단위와의 음운적 일치 혹은 유사성이다. 만약 이들 양자 간에 최소한의 음운적 유사성마저 없다면 차용한자는 의도한 의미를 나타낼 수 없거나 다른 의미로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한자차용에서는 음절 또는 음소를 표시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한자차용상 음운표시의 특징과 차용한자의 운용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차용한자의 표시 음운단위

한자차용의 표시대상은 대부분 음절이다. 한자는 문자 유형상 형태소-음절 문자로서⁹⁾ 한자의 최소 음운 표시 단위는 음절이다. 즉, 한자는 소수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¹⁰⁾ 음절을 서사경계로 하여 하나의 음절을 적는 서사형 식인데¹¹⁾, 이러한 문자적 속성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음절인 한글과 서사단위 측면에서는 일치를 보이고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말에서의 빈번한 한자차용의 언어적 환경이자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한자차용이 특히 단음절의

9) 여기에서의 ‘형태소-음절문자’라 함은 裘錫圭(1988:18)의 ‘語素-音節文字’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한자는 전체 한자 중 음의합성법에 의해 발음 정보를 가지는 形聲字가 『說文解字』에서부터 이미 82%를 차지하였고 현대 한자에서도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蘇培成1994:76), 또 음운 차용의 원리를 이용한 가차가 매우 빈번하므로 한자를 단순히 표음문자라 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한자의 문자 유형을 논할 때에는 표의적 기능뿐만 아니라 표음의 속성을 함께 나타내는 ‘형태소-음절문자’로 칭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10) 중국에서 사용하거나 고대에 사용되었던 한자 중에는 하나의 글자로 여러 음절을 표시하는 이른바 다음절자가 있다. 예를 들어 ‘溼’는 ‘海里’를 나타내거나, 서주시대 금문에서의 ‘斌’이 ‘文武’ 즉 ‘文王’·‘武王’ 두 왕을 나타낸 것, 그리고 금문 및 갑골문에서의 畝文 등이 두 글자를 하나의 서사단위 내에서 표기하고 실제 읽을 때는 두 음절로 읽는 대표적인 예이다.

11) 이러한 문자적 특성은 단음절어라는 중국어의 유형학적 특질에 잘 부합하고 있어서, 한자가 인지하기 어렵고, 쓰기 어렵고, 배우기 어렵다는 이른바 ‘三難’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갑골문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형태소 또는 단어를 적는 문자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순우리말 형태소나 단어, 그리고 한자어 형태소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단음절어의 서사체계인 한자의 서사형식이 한글의 서사형식과 잘 부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극히 소수이긴 하지만 한자차용에 있어서 음소에 대한 한자차용이 이루어진 사례도 발견된다. 사실, 하나의 한자로 특정의 음소를 대체한다는 것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¹²⁾ 불가능하지만¹³⁾, 우리말 한자차용 중에는 제한적으로 음소를 표시대상으로 한 사례가 있는데, 아래의 [13]이 그 예이다.

[13] “true 友riend” (증권사 모토)

true friend

[13]의 ‘友’는 ‘友riend’ 앞의 ‘-ue’가 유도하는 장음의 원순성 모음 [u]를 표시한 것으로서, 바로 하나의 한자가 하나의 음소를 표시한 예인 것이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友’의 차용에 있어서 ‘友’가 알파벳 대문자 ‘F’와 형태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다는 사실인데, 이것은 사례[13] 우측의 그림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이 ‘友’는 곧 음소 [u]를 표시했을 뿐만 아니라, 형태의 유사성 및 의미적 연관성으로써 영어단어 ‘friend’를 동시에 연상케 한 것이다. 따라서 [13]은 한자차용에 있어 음운 차용과 더불어 형태·의미 차용까지 겸한 사례라 할 수 있다.

2. 표시 음운단위와 차용한자의 음운적 일치성

문자차용에서의 음운의 일치성은 차용에 의해 표시되는 음성기호의 원활한 부호해독(decode)과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말 중의 한자차용에 있어서도 차용한자는 일반적으로 우리말 형태소 또는 단어와 동음이다. 그런데 상당 부분의 한자차용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동음의 한자가 아닌 유사음의 한자를 차용하는 사례도 상당수

12) 중국어의 고대 발음표기법인 反切法에서 反切上字 간의 ‘雙聲’이 대표적인 예이다.

13) 중국어에서는 하나의 한자로 특정의 음소, 특히 하나의 자음을 표기하는 사례가 제한적으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일부 방언 중 ‘없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嘿’는 [m]의 한자 표기이고, 승낙이나 의문의 감탄사 ‘浬’는 [n], 또 승낙의 감탄사 ‘嚶’·‘呬’는 각각 [n]·[ng]을 표기한 사례이다.

발견된다.

차용한자	한자음	대상음절	용례	빈도
金	금	겁	金 나게 말달린 ○○○	1
加	가	구	순眞무加	1
頭	두	드	骨頭波網	1
毛	모	뮌	모(毛)가 문제?	1
稅	세	새	세미래稅美來	1
四	사	샤	美四	1
愛	애	에(처소)	內安愛, 바닷가愛擘	20
		에(시간)	늦은 후愛, 가을愛	7
		해(종결)	사랑愛	1
		해(명령)	간호愛	1
		의(관형)	너愛 적십자	1
에(외래어)	愛say, 愛너지	6		
利	이	에(외래어)	리티켓	1
魚	어	여	대동魚지도	1
溫	온	웃	溫맵시	1
座	좌	자	임자(姪座)를 만나다	1
記	기	키	我記宅處	1
宅	택	텍	我記宅處	1
肺	폐	패	폐(肺)자 부활전	1
票	표	포	票폴리즘	1
顏	안	한	強顏남자	1
安	안	한	몸이 편安 한의원	1
梨	이	히	한입가득梨	1
休	휴	큐/유	락휴[즐거울락樂 쉴휴休]	1

〈표2〉 한자차용상 음운 불일치 사례

본고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한자차용 사례 중 차용한자와 표시대상 음절이 음운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예는 모두 55개로서 전체 한자차용 중 약 21%에 해당한다.¹⁴⁾ 한자차용에 있어서 음운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음운상의

14) 위의 용례 중 ‘愛’는 음운상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사용 횟수를 보이고 있다.

로 최소한의 유사성만 있으면¹⁵⁾ 한자차용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이것은 한자차용에 있어서는 차용한자에 의해 표시되는 발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용 대상 음절에 의해 나타내어지는 형태소 및 단어 의미, 혹은 문법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¹⁶⁾

V. 한자차용의 의미 표시

1. 한자차용의 의미표시 유형

의미표시를 중점으로 하는 한자차용은 순우리말·한자어·외래어 및 외국어의 우리말 표기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자차용은 이들을 구성하고 있는 음절·형태소·단어 등을 의미표시의 대상으로 삼아 동음 혹은 유사음의 한자로 이들을 대체하는데, 위의 각종 언어 형태에서 발생한 한자차용을 음절·형태소·단어에 대한 의미표시 방식을 중심으로 유형화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순우리말 단어의 전체 혹은 일부 음절을 동음 혹은 유사음의 한자로 대체한 한자차용이다. 이러한 한자차용은 의미가 없거나 문법적 의미만 있는 일부 음절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기존의 단음절 단어나 형태소를 의미가 다른 형태소로 대체하여 의미의 교체가 실현된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전자의 예로는 아래의 [14]가 있는데, ‘나누미’ 중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접사 ‘미’를 ‘美’로 대체함으로써 ‘사랑을 나누는 미덕’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었다. 후자의 예로는 [15]·[16]이 있는데, 이들은 각각 ‘남(타인)’이라는 단음절 단어와 물을 의미하는 ‘무’가 17) 각각 ‘南’·‘無’와 같이 ‘남쪽(강남)’과 ‘없다’는

15) 가령 <표2> 중의 ‘金(금)’은 ‘깎’이 뒤의 음절 ‘나’의 영향을 받아 ‘깎’으로 소리 나는 것과의 음운 유사성에 근거하여 차용한자를 운용한 예이다. 이 둘의 초성은 동일하고 중성은 모두 양순음이라는 유사성 때문에 한자차용이 이루어졌다.

16) 중국어에서의 가차나 통가는 완전 동음의 조건에 부합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분 동음이라 하더라도 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는 문자 운용에 있어 쓰기의 편의성 역시 대단히 중시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7) ‘무더위’ 중의 첫 음절 ‘무’는 ‘물’에서 유래하였다(←물+덜+-의). 따라서 여기에서의 ‘無더위’는 원래의 ‘습도와 온도가 매우 높아 찌는 듯 견디기 어려운 더위’에서

뜻의 차용한자로 대체되면서 형태소의 의미 교체가 실현되었다.

- [14] “우리사랑 나누美, 나는 7% 적금利多” (○○은행 은행 금융상품 광고)
- [15] “南 부럽지 않다” (서울 강북 모 지역의 아파트 분양 광고)
- [16] “無더위로 가는 길, SUV는 알고 있다” (『아시아경제』 기사)

둘째, 우리말 한자어의 전체 또는 일부의 음절을 의미가 다른 한자로 대체한 한자차용이다. 진술한 순우리말의 한자차용과 다른 점은, 위 [14]와 같이 의미가 없는 특정의 음절이 한자차용에 의해 비로소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한자어를 구성하는 기존의 한자가 다른 한자로 대체되면서 의미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가령, [17]은 원래 단음절 한자어인 ‘수(數)’가 ‘水(물)’로 대체된 예이고, [18]은 이음절의 ‘想像’이 ‘上上(매우 높은 수준)’으로, [19]는 ‘茫然自失’ 중 앞의 두 음절 ‘茫然(아무 생각이 없이 멍한 태도)’이 ‘望演(연극을 보다)’으로 대체된 예이다.

- [17] “수(水) 많은 즐거움 KBOAT”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 홍보)
- [18] “上上UPGRADE” (직무능력향상 프로그램명)
- [19] “望演自失” (『○○일보』 공연 비평 칼럼명)

셋째, 우리말 외래어 표기상 의미가 없는 일부 음절을 의미가 있는 동음 또는 유사음의 한자로 대체한 경우이다. 아래의 [20]-[21]-[22]가 이 예인데, ‘energy’·‘internet’·‘drama’의 우리말 외래어 ‘에너지’·‘인터넷’·‘드라마’ 중의 ‘에(e-)’·‘인(in-)’·‘마(-ma)’를 동음 또는 유사음의 한자 ‘愛’·‘忍’·‘馬’로 대체한 것이다.

- [20] “○○ 그린 愛너지 정기예금” (○○은행 저축상품)
- [21] “웹하드가 ‘忍터넷 주범’” (『○○신문』 기사 제목)
- [22] “감동 馬라馬” (한국마사회 광고)

‘더위가 없다’라는 뜻으로 변화한 것이다.

넷째, 외국어의 우리말 표기 중 일부 음절을 동음 혹은 유사음의 한자로 대체한 예이다. 가령, [23]·[24]의 ‘美’와 ‘油’는 영어 문장 “Look at me”와 “Thank you” 중의 ‘me’와 ‘you’를 차용한자로 대체한 예이고, 또 [25]는 ‘want you’에서 ‘-t’와 ‘you’가 연음된 형태에 대한 우리말 유사음 ‘추’가 차용한자 ‘秋’로 대체된 것이다.

[23] “룩앳美” (성형외과 상호)

[24] “Thank油” (대한석유협회 석유산업 홍보)

[25] “溫가족 윈~秋 한가위” (○○카드사 광고)

2. 한자차용의 의미 표시상 효과

전술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자차용의 목적은 음운 간의 대략적 일치성에 근거하여 의미가 없는 음절의 有意味化와, 의미가 있는 형태소 및 단어의 의미교체라는 두 가지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전자는 ‘유의미화’, 후자는 ‘의미교체’로 간단히 개념화 할 수 있겠다. 유의미화는 의미를 가지지 않는 일부 음소나 음절을 의미가 있는 한자를 차용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의 차용한자는 비록 문장 내에서 문자상 이질적 형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¹⁸⁾ 이미 단순한 상징(symbol)에서 벗어나 해당 단어나 전체 문장 중 의미 중심이 부여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또 ‘의미교체’는 형태소의 교체를 통한 의미자질의 전면적 교체라 할 수 있는데, 의미교체에 있어서는 중의성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¹⁹⁾ 의미교체에 따른 차용한자의 중의성은 다음과 같이 개념 표시상의 몇 가지 효과가 있다.

첫째, 한자차용 중 의미교체에 운용된 한자는 둘 혹은 셋 이상의 의미를

18) 예를 들어 “더할수록 행복합니多(강남구청 출산장려 캠페인)”와 “FUN FUN한 애너지 배구 (2011년 V리그 홍보)” 등과 같이, ‘多’·‘FUN’·‘愛’는 모두 우리말과는 이질적 요소로 존재하고 있다.

19) 일반적으로 언어 표현상의 중의성은 언어의 경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지만(윤평현 2008:249), 우리말 한자차용에서의 중의성은 이와는 반대로 다른 의미로의 해석을 유도하는 이중의 노력을 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

동시에 연상시키게 한다. 이를 ‘다중연상’라 칭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기존의 의미를 대표하는 단음절 형태소나 단어가 다른 의미의 차용한자로 대체되어도 우리말 중의 기존의 의미는 해당 언어단위에 그대로 잔존하면서 여기에 다시 차용한 한자의 의미가 덧씌워져 이중 혹은 삼중의 의미 연상을 일으키게 한다. 예를 들어 아래의 [26]·[27]·[28]은 이중연상을 일으키는 예로서, [26]은 ‘높은(高)’ 유류 가격과 이로 인해 ‘고통(苦)’을 받는다는 두 의미를 연상시키게 하고 있고, [27]은 ‘설(설날)’과 ‘눈(雪)’을, [28]은 ‘주인’과 ‘임산부 좌석’과 같이 두 의미의 이중연상을 추구하였다.

- [26] “아!痛苦가... 하늘·바다 운송업체 쇼크” (○○신문 기사 제목)
 [27] “雪 맞아야 맛! 시래기 & 황태” (KBS 프로그램 코너명)
 [28] “임자(姪座)를 만나다” (서울도시철도 임산부 배려석)
 [29] “Start 業” (○○대학교 광고)
 [30] “이런 便이 있나” (MBC 생방송 오늘)

또 위 예 중 [29]·[30]은 삼중연상의 예이다. 즉, [29]에서는 원래의 ‘up(업)’이 차용한자 ‘業’으로 대체되어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취업(業)에 큰 관심을 기울여 학생들의 취업률을 제고할(up) 것이니 ○○대학교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라(start up)’는 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 [30]은 ‘배변(便: 변)의 곤란함과 이에 따른 생활상의 난처함과 건강상의 변고(變)가 있는 사람은 이 프로그램을 시청함으로써 일상생활이 편안(便:편)해질 수 있다’는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이를 연상케 하였다.²⁰⁾

둘째, 한자차용에 운용된 한자는 차용의 주체를 나타내기도 한다. 아래의 예들은 각각 원래의 ‘周’·‘童’·‘~로(지향)’와 ‘ㅁ(-ma)’·‘me’가 ‘株’·‘銅’·‘路’·‘馬’·‘米’로 대체되었는데, 이때 차용된 한자들을 통해 아래 예의 한자차용의 주체가 각각 ‘주식(증권)’·‘구리산업’·‘교통’·‘말산업’²¹⁾·‘농업’에 관련

20) 이러한 다중 연상은 의미를 연상하는 의식적 노력에 따라 해당 한자가 표시하는 의미에 대해 깊고 장기적인 인상을 가지게 하는 인지심리상의 효과도 있다.

21) ‘말산업’이란 단어는 국어사전에 등재되지 있지는 않으나, 최근 ‘말산업 육성법’·‘말산업 본부’·‘발산업 박람회’ 등과 같이 ‘말산업’이란 용어의 사용이 빈번하다.

된 기관임을 짐작케 한다. 특히 [34]는 낮은 난이도의 한자 ‘馬’를 차용하여 외래어 중 의미가 없는 일부 음절 ‘마(-ma)’를 유의미화 함으로써 이 한자차용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 [31] “株把手” (○○증권사 광고)
- [32] “기발한 銅話로 1등을 접수하라” (○○금속 공모전 타이틀)
- [33] “내일로(Rail路)” (KORAIL)
- [34] “감동 トラ馬” (한국마사회 광고)
- [35] “Love 米” (농촌사랑 마라톤대회 홍보)

셋째, 한자차용은 차용 주체의 존재 의의나 지향하는 바를 표시한다. 단음절의 문자인 한자는 하나의 부호로 짧은 시간 내에 긍정 또는 부정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표의상의 장점이 있는데, 이에 착안하여 아래 예들은 긍정적인 의미자질을 가지는 한자를 차용해 존재 의의나 지향하는 바를 직관적으로 표시하였다.

- [36] “대한민국 미드必다” (○○대학교 광고)
- [37] “動트는 동해” (강원도 동해시 홍보 포스터)
- [38] “時時 call call 걸어주세요” (서울메트로)

앞의 예들은 한자차용의 주체들이 각각 ‘존재의 중요성’·‘역동성’·‘서비스의 상시성’ 등과 같이 자신들이 표방하고자 하는 가치 지향성을 해당 의미와 연관이 있는 한자를 차용하여 표현한 예이다. 가령 [36]은 중부권 소재 모 대학교와 관련한 알림인데, 여기에서는 한자차용의 주체 자신들이 마치 축구의 포지션 중 소위 ‘중원의 사령관’이라 칭해지는 ‘미드필더’임을 표방하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적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 음절 ‘필(-fiel-)’을 ‘必’로 대체한 것이다. 또 [37]은 원래 동(東)이 트는²²⁾ 지역이라는 서정적인 이미지의 전달과 함께 역동적인 도시로의 이미지 전환을 추구한다는 지향성을

22) ‘동트다’는 자동사로서 ‘동쪽 하늘이 밝아 날이 새다’는 의미인데, 여기에서의 ‘동(東)’은 동쪽을 가리킨다.

나타내고 있고, [38]은 상담센터의 운영에 있어 문의 및 민원관련 사항을 언제든지 접수하여 해결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서비스 품질 제고라는 목적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3. 한자차용에 따른 언어적 변화

한자차용은 단음절의 단어나 형태소에 국한되지 않고 다음절어의 특성을 띠는 우리말 및 외래어 중의 여러 음절들로 차용 대상이 확대되었다. 다음절 단어에서의 한자차용에 의한 유의미화와 의미교체의 실현은 다음절 단어의 구성요소 간의 긴밀한 의미적 연관관계를 발생시켰다. 가령 아래 [39]에서 원래의 우리말 이음절 단어 ‘다리(교량)’는 ‘多(많다)’와 ‘利(이익)’라는 두 한자의 차용에 의해 두 음절은 의미상 연관관계가 발생하여 ‘많은 이익(이 있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또 [40]은 ‘가정’이라는 하나의 이음절 한자어가 차용한자 ‘嘉’와 ‘亭’의 의미적 연관관계에 의해 ‘아름다운 정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게 된 예이다. 또 [41]은 ‘여행’이라는 단어가 ‘女’와 ‘幸’과의 의미상 연관관계에 의해 ‘여성이 행복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다. 이러한 차용한자 간의 의미적 연관관계는 [42]·[43]·[44]가 각각 ‘내 안의’·‘새로운 미래’·‘내가 본’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과 같이 차용한자에 의해 대체되는 음절이나 단어·형태소가 많아질수록 더욱 복잡해진다.

[39] “마포 多利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사무소 상호)

[40] “가정(嘉亭)” (서울 시내 모 음식점)

[41] “여행(女幸) 공원” (서울시 안전한 공원 만들기)

[42] “內安愛 내과” (모 내과 의원 상호)

[43] “대한민국 세미래稅美來가 만들어갑니다” (국세청 성실 납세 캠페인)

[44] “來家本 고춧가루”(농산물 브랜드)

한자차용에 의한 새로운 의미관계의 발생은 결과적으로 단어의 품사 변화 뿐만 아니라 형태소 및 단어 간 결합구조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우리말의 문법구조와 다른 한자어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45]의 ‘효

자’는 원래 ‘孝’와 ‘子’가 수식의 구조로 결합된 명사이지만, ‘나에게 하는 효도’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둘째 음절을 ‘自’로 대체시켰는데, 이때에는 이음절의 명사가 마치 동사 ‘孝’와 명사 ‘自’가 결합된 형식으로써 목적어가 동사술어 뒤에 후행하는 우리말과는 다른 문법구조의 단어를 형성하게 되었다. 또 [46]은 청유형 종결 어미 ‘자’가 차용한자 ‘自’로 대체되면서 남에게 어떤 행동을 권하거나 재촉하는 감탄사 ‘자’ 또는 ‘스스로’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로써 원래의 ‘일어나자’는 ‘일어서, 자!’ 혹은 ‘일어서! 스스로!’와 같이 문법구조 역시 변화되었다. 그리고 [47]과 같은 성어의 경우에는 구성요소들이²³⁾ 원래 고대중국어의 문법규칙을 따르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들 성어 역시 한자차용에 의해 구성요소 간의 문법적 결합관계가 확연히 달라졌다. 즉, ‘망연자실(茫然自失)’은 원래 ‘멍한 상태로 스스로가 정신을 잃음’이라는 의미로서 ‘부사어(茫然)+주어(自)+술어(失)’의 구조였지만, ‘茫然’이 ‘望演’으로 대체됨으로써 ‘望演自失’은 ‘공연을 보고 스스로 넋이 나가다’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앞의 두 구성성분은 ‘술어(望)+목적어(演)’의 구조로 변화되었다.

[45] 孝自, 내가 나에게 하는 효도, 평생월급 국민연금 (국민연금 홍보 포스터)

[46] 일어서自 (서울시 서울형 복지 홍보 포스터)

[47] 望演自失 (『○○일보』 공연 관람평 칼럼)

한자차용에 의한 의미관계의 변화와 이에 따른 단어 품사 및 결합구조의 변화 현상은 외래어 및 외국어의 우리말 표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아래의 [48]은 영어 단어 ‘history’ 중 첫 음절이²⁴⁾ ‘喜’로 대체되면서 하나의 다음절 명사가 ‘수식어+피수식어’의 문법구조를 가지는 어구로 변화

23) 문법단위의 구성에 참여하는 둘 이상의 요소를 구성요소(constituent)라 하는데(황화상 2011:53), 성어도 하나의 단어라 볼 수 있으므로 성어를 구성하는 개별 한자들 역시 구성요소라 칭할 수 있다.

24) 본고에서 영어 단어의 음절은 우리말로 표기하였을 때의 음절 구분에 근거하였다. 가령 여기에서 예를 든 ‘history’와 ‘architecture’는 각각 ‘히스토리’와 ‘아키텍처’와 같이 우리말로 표기하였을 때는 모두 네 음절의 단어이다.

한 예이다. 또 [49]는 영어 명사 ‘architecture’의 우리말 표기 ‘아키텍처’가 네 자의 차용한자에 의해 새로운 결합관계가 발생하면서 ‘나는 거처(에 관한 견해)를 기록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각 성분들은 ‘주어(我)+술어(記)+목적어(宅處)’의 결합구조를 띠는 전형적인 VO형 언어의 문법구조로 변화된 예이다.

[48] “喜story” (노래방 간판)

[49] “我記宅處” (○○일보의 모 건축가 칼럼)

앞의 관련 예들은 모두 우리말 언중이 우리말뿐만 아니라 외국어의 문법 규칙을 운용하는 등 다양한 언어능력을 발휘하여 우리말 단어의 문법구조와 다른 말들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VI. 한자차용의 문자 운용 특징

이론적으로 모든 한자는 차용에 운용될 수 있는데, 다만 알림에 있어서는 특정 의미의 한자를 선택해야 유의미화와 의미 교체를 통한 알림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한자차용에 실제 운용될 수 있는 한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본고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한자차용 사례에서는 모두 162자의²⁵⁾ 한자가 차용에 운용되었는데, 한자차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의미표시와 관련하여 이들 차용한자의 상용도와 난이도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차용한자의 상용도를 살펴보면, 한자차용에서는 긍정의 의미자질을 가지는 한자일수록 사용빈도가 높다. 아래 <표3>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愛’·‘多’·‘樂’·‘美’ 등 긍정의 의미를 가지는 한자의 사용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네 자의 차용은 전체 차용한자 중 약 55.6%를 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자차용이 알림의 목적을 위한 문구에서 주로 운용되고 있고, 또 알림의 내

25) 이들 한자의 수는 전체 한자에 비해 충분치는 않지만, 한자차용에 있어 차용한자의 대표적 속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일정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용 및 목적이 대체로 요구나 경고·강제보다는 주로 추천하고 지향해야 할 사물이나 사상을 알리고 전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로 인해 ‘愛’와 같은 한자는 음운상 유사성이 떨어지더라도 다양한 의미의 형태소를 대상으로 의미 교체를 실현함으로써(<표2> 참조) 차용의 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다’와 같이 의미가 없는 일부 음절을 ‘多’로 대체한 것 역시 차용한자를 통해 긍정의 의미를 나타내려는 한자차용의 적극적 노력의 결과인 것이다.

빈도	한자
42	愛
19	多
16	樂
13	美
8	女
5	情 海
4	家 利 毛 味 米 四 水 新 人 秋 好
3	糖 來 馬 時 野 話
2	苦 高 空 九 金 童 落 里 無 色 性 笑 神 辛 亞 顏 夜 溫 友 月 油 自 酒 眞 車 通 夏 韓 幸 喜
1	加 嘉 各 甲 江 開 骨 狂 校 口 國 君 記 南 男 內 豚 冬 動 銅 頭 路 梨 慢 望 卯 妙 便 餅 本 佛 不 死 史 山 上 書 搯 善 鮮 雪 城 勢 稅 小 所 手 樹 秀 施 示 翅 識 實 失 我 安 癌 鶯 羊 魚 業 麗 演 泳 禮 伍 渦 龍 牛 幼 唯 銀 耳 忍 網 妊 作 長 展 煎 電 亭 座 株 中 饌 處 千 天 齒 宅 土 把 波 肺 票 必 下 閑 恨 亥 兄 虎 火 禍 花 休

<표3> 차용한자의 상용도

다음으로 차용한자의 난이도를 살펴보면, 한자차용에서의 한자는 언중들이 해당 한자의 발음과 의미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차용한자들을 난이도별로 분류해보면, 아래 <표4>와 같이 5급²⁶⁾ 이하의 한자가

26) 본고에서의 한자의 난이도별 급수는 한국어문회의 한자능력검정시험 급수를 참조하였다.

모두 100자로 전체 차용한자의 약 62.3%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자차용에서 인지상 용이성이 높은 범용의 한자를 운용한 것은 전문적인 한자 지식 습득 여부와 상관없이 알림의 대상이 더욱 확대되고 알림의 목적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되게 하려는 의도에 의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급수	한자	자수
8	女 四 九 金 月 韓 校 國 南 山 小 伍 長 中 土 兄 火	17
7	海 家 秋 來 時 話 空 里 色 自 車 夏 江 口 記 男 內 冬 動 便 不 上 所 手 安 電 千 天 下 花 休	31
6(2)	樂 利 高 童 神 辛 幸 書 雪 作	10
6	愛 多 美 米 新 野 苦 夜 溫 油 通 各 頭 路 本 死 樹 失 業 禮 銀 開	22
5	情 馬 落 無 性 亞 友 加 望 史 善 鮮 示 識 實 魚 牛 耳 展 宅 必	21
4(2)	毛 味 笑 眞 銅 佛 城 勢 稅 施 羊 麗 演 處 齒 波 票	17
4	水 人 好 酒 喜 甲 骨 君 妙 秀 龍 座 閑 恨	14
3(2)	糖 顏 我 忍 肺	5
3	豚 梨 慢 卯 泳 幼 唯 亭 株 亥 虎 禍	12
2	狂 癩 妊 把	4
1	餅 煎 饌	4
급수의	嘉 摺 翅 鴛 渦 網	6

〈표4〉 차용한자의 난이도

그런데, 앞의 사실과는 반대로 1·2급 이상의 한자, 심지어는 급수에 포함되지 않는 한자 등, 고난이도의 한자를 운용하는 사례도 종종 발견된다. 이와 같이 인지상의 용이성이 현격히 낮은 한자를 운용한 것은 한자차용에 의한 직관적인 의미 전달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해당 한자에 대한 궁금증의 유발하고 지적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알림의 내용에 대한 강한 인상을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측면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의 효용성이 있다 할 수 있다.²⁷⁾

27) 예를 들어 상업용 광고에서도 언어처럼 커뮤니케이션 과정 중의 부호화(encode)와 부호해독의 과정을 매우 중시하는데(이희욱2009:139), 이 과정은 언중들이 직관적 해독 능력과 더불어 논리적 유추 등을 통해 해당 의미와 관련 사물에 대한 기억과 인식을 자연스럽게 강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VII. 한자차용의 문제점

진술한 바와 같이 한자차용은, 차용되는 한자가 한글과는 다른 이질적 형태와 복잡한 필획을 띠고 있음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언중의 주의를 이끌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차용한자에 의한 유의미화와 의미교체의 실현으로 알림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의미교체 측면에서는 다중연상의 작용으로 여러 메시지를 한꺼번에 전달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알림을 목적으로 하는 언어 환경에서는 우리말 중의 한자차용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현재 우리말 사용에 있어서는 각종 외래어를 비롯하여 우리말 맞춤법이나 의미상 결합관계를 무시한 부적절한 말들²⁸⁾, 외계어, 이모티콘 등이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저해하고 있는데, 한자차용 역시 우리말 사용상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 있어 이에 대해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우리말 쓰기의 일반적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먼저 관련 예들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50] “FUN FUN한 사랑지 배구” (2011년 V리그)

[51] “30자 情YOU 캠페인” (○○정유회사 사랑의 메시지 전하기 캠페인)

[52] “溫맵시 입GO!” (한국전력 에너지 절약 캠페인)

[53] “人터뷰 후아유” (MBC 프로그램명)

[54] “대학생에게는 필수, young리한 체크카드” (우체국 금융상품 광고)

앞의 [50]·[51]·[52]·[53]은 모두 우리말·영어 알파벳·한자가 혼용된 사례이고, [54]는 외국어의 우리말 표기 형식과 한자가 뒤섞여있는 형태로 직관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움을 주고 있다. 제3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차용한자

28)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착하다’의 오용이다. ‘착하다’는 원래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라는 의미로서 수식할 수 있는 대상은 주로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이지만, 최근에는 유통업체나 방송 등을 중심으로 ‘착한 가격’·‘착한 몸매’·‘착한 계란’ 등과 같이 피수식어가 사물인 경우가 빈번하다. 이는 우리말 형성사의 명백한 오용 사례이므로 시정이 필요하다.

의 표기형식은 혼용·부기·병기 등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의미 표현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모두 우리말 문장의 일반적 쓰기 방식은 아니다.²⁹⁾ 특히 앞의 예들과 같은 혼용의 경우에는 한자를 우리말과 함께 직접 노출시킴으로써 우리말 쓰기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³⁰⁾ 더구나 [52]·[53]·[54]의 경우에는 공적 단체의 한자차용 사례로서, 이는 『국어기본법』의 올바른 우리말 문화의 보급과 관련한(국립국어원 2008)³¹⁾ 공적 단체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의미전달이 모호한 한자차용에 따른 의사소통상에서의 문제점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55]에서와 같이 ‘신나는’의 첫음절을 ‘고생하다’란 의미의 ‘辛’으로 대체하였는데, 편안한 주거환경이나 저렴한 가격을 기대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아파트 광고에 ‘辛’을 차용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³²⁾ 또 [56]에서 ‘많다’라는 뜻의 차용한자 ‘多’는 우리말의 ‘모두’를 뜻하는 ‘다’와 의미상 불일치하기 때문에 확정적이지 않은 의미로 인한 소통상의 어려움은 물론, 만약 판매된 상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자차용 주체와 소비자 간에 분쟁을 유발할 소지까지 안고 있다.

[55] “辛나는 전세” (○○ 아파트 광고)

[56] “○○마트 상품 多(다) 보증서비스” (○○마트 광고)

29) 『한국 어문 규정집』 중에서는 한자어 표기와 관련한 규정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지만, 이 규정집의 기술 형태를 살펴보면 필요한 경우에만 부기의 방식으로 한자를 괄호 또는 격쇠부호 안에 보조적으로 표기하고 있고 한자의 혼용이나 병기 형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통해 어문 규정상 한자 표기는 대체로 부기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혼용이나 병기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다.

30) [52]·[53]·[54]와 같은 공적 단체의 한자차용은 우리말 사용에 있어 전혀 ‘공익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앞장서서 우리말 표기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하겠다.

31) 『국어기본법』 제3장 제15조 제2항에서는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 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2) 이 광고와 관련한 아파트는 소위 ‘신개념 전세’를 표방하면서 높은 전세가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아파트를 선택해 고통해서 벗어나라는 취지에서 ‘辛’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우리말 습관상 ‘辛나다’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언뜻 연상케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이 한자차용은 의사소통상의 곤란함을 주고 있는 것이다.

셋째, 한자차용은 우리말 맞춤법에 근거한 올바른 쓰기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의 제4장 제(2)절의 분석에서와 같이 한자차용에서는 한자의 의미만을 중시한 나머지 해당 음절의 원래 발음과는 다른 한자를 차용한 예가 다수 발견되는데, 이와 같은 차용한자와 표시 언어단위와의 음운적 불일치는 우리말 맞춤법 정립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아래 [57]처럼 두음법칙과 같은 기본적인 맞춤법 관련 원칙(국립국어원 2011:18, 박형익 2008:34)의 위반과, 또 [58]에서 국제 음성 기호상의 /e/·/ɛ/는 한글로 ‘에’로 표기하고 /æ/는 ‘애’로 표기한다는(2011:125)³³⁾ 외래어 표기의 원칙을 어긴 것 등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³⁴⁾

[57] “희희(喜喜) 락락(落落) sale sale” (○○마켓 저가판매 광고)

[58] “○○ 그런 애너지 정기에금” (○○은행 금융상품 광고)

넷째, 우리말 문법규칙에 어긋나거나 용례가 없는 비표준 한자어를 만들어냄으로써 우리말 어휘 사용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앞의 제5장 제(3)절 중의 [45] ‘孝自’와 같이 한자어의 조어에 있어 우리말 문법규칙의 지배를 받지 않고 ‘술어+보어’의³⁵⁾ 결합구조의 단어를 만든 사례라든가, 아래의 [59]·[60] 중의 ‘와라락’·‘姪座(임산부석)’와 같은 비표준 우리말 단어 및 한자어가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예이다. 이 같은 한자어의 조어는 외래어 중의 하나인 한자어가 우리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또 다시 한

33) 영어의 표기는 모두 국제 음성 기호의 한글 표기를 따르고 있다. 또 영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는 별도로 구별하여 표기하지만(김진규2005:272) ‘energy’의 경우는 모든 영어에서 동일하게 발음되므로 우리말 외래어에서도 ‘에너지’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34) 실제 우리말 중에서는 음운상 /e/·/ɛ/와 /æ/의 대립쌍이 더 이상 대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관련 실험들을 통해 알 수 있다(신지영2011:160~162). 이와 같은 현상은 언중들의 외래어 표기에 있어서도 일정 정도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본문 중 [58]의 예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 할 수 있다.

35) 여기에서의 ‘보어’는 중국어 문장 성분으로서의 보어를 일컫는다. 단어의 분석에 있어서도 우리말 문법체계와 한문의 문법체계는 근본적으로 달리 보는 것이(김창섭 2008:122) 옳은데, 이러한 점은 중국어에서 술어 뒤에 위치하여 술어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보어의 존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차차용에 의해 우리말 문법구조와 다른 한자어를 만들어냄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우리말 조어 풍토 조성을 저해할 수 있다.

[59] “경품이 와라락!!! ○○카드 와라樂 이벤트” (○○카드)

[60] “임자(姪座)를 만나다” (서울도시철도 임산부 배려식)

VIII. 맺는말

한자차용은 한자의 표의적 특성을 활용한 문자 운용의 현상 중 하나로서, 사회 여러 분야에서 알림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큰 효용성을 발휘하였다. 이에 따라 한자차용은 향후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우리말 사용상의 여러 문제들은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올바른 우리말 사용과 교육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자차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대비와 문제 해결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관련 연구자 및 연구단체에서는 본고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충분한 사례의 조사 및 수집과 다각도의 분석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 기관에서는 한자차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습자들의 우리말 쓰기상의 문제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우리말 맞춤법에 근거한 올바른 우리말 단어 및 문장 쓰기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관공서나 공영 기관 등 공적 단체에서는 무분별한 한자차용이 다른 외래어 사용보다 더 심각한 우리말 오염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언중에 대한 공적 단체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무분별한 한자차용으로써 우리말 오염을 부추겨서는 안 될 것이다.

전술한 한자차용의 문제점들은 궁극적으로 한자차용이 의미표시만을 추구한 나머지 우리말 문법규칙이나 표준어 등을 고려치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다. 한자에 유래를 둔 형태소를 활용한 단어의 조어는 정확하고 함축적인 의미

전달을 가능케 하고 언어경계를 실현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어방식은 한자차용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조어 과정에서도 널리 운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언어적 현실이다. 다만, 우리말 습관에 어긋나는 잘못된 한자차용은 한자의 오·남용은 물론, 우리말 어휘체계를 혼란케 하고 외국어 문법규칙에 따른 비표준 신어의 조어로 인해 올바른 우리말 단어의 조어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말을 사용하는 모든 이들은 한자차용 현상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립국어원. 『한국 어문 규정집』, 서울, 2011.
국립국어원. 『국어기본법(2008년 개정)』 <http://www.korean.go.kr>, 서울, 2008.
김진규, 『맞춤법과 표준어』, 공주, 공주대학교 출판부, 2005.
김창섭, 『한국어 형태론 연구』, 파주, 태학사, 2008.
박형익, 『한국 어문 규정의 이해』, 파주, 태학사, 2008.
신지영, 『한국어의 말소리』, 서울, 지식과 교양, 2011.
윤평현, 『국어의미론』, 서울, 도서출판 역락, 2008.
이희복, 『광고 활용 교육과 창의력』, 파주, 한울 아카데미, 2008.
이희욱·안의진·이경탁, 『광고: 이론과 전략』, 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國漢混用論』, 서울, 도서출판 월인, 2006.
황화상, 『현대국어 형태론』, 서울, 지식과 교양, 2011.
裘錫圭, 『文字學概要』, 北京, 商務印書館, 1988.
蘇培成, 『現代漢字學綱要』,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4.
張玉金 『漢字學概要』, 南寧, 廣西教育出版社, 2001.

❖ ABSTRACT

Study on Chinese Character Borrowing in Korean Language

PARK, SEOK HONG

There is linguistic phenomenon that Korean syllable, morpheme and word are substituted with Chinese Character. These phenomenon is called Chinese Character Borrowing, the Chinese character used here is called Borrowed Chinese Character. Whereas borrowing Chinese character in Chinese is used for borrowing only sound for different word, borrowing Chinese character in Korean is used for assigning new meaning. Hence, by borrowing Chinese character in Korean, a syllable which had no meaning originally get new meaning, morpheme and word meaning has changed.

At advertisement and campaign, Chinese Character Borrowing has lots of linguistical advantage such as visual immediacy, effectiveness of meaning expression. However, there are number of cases found that violate grammar rule and word constitution practice by Chinese Character Borrowing. For this reason, Chinese Character Borrowing has the problem polluting Korean along with another foreign words. Thus, this paper focus on study Chinese Character Borrowing phenomenon in Korean, and analysis its effectiveness and impact in Korean. In addition, analysis the problem of Borrowed chinese Character, and suggestion several alternative for right use of Korean is followed.

Key Words

한자차용, 차용한자, 음운차용, 의미차용, 한국어 단어

Chinese Character Borrowing, Borrowed chinese Character, Phonetic Borrowing, Semantic Borrowing, Korean Word

384 비교문화연구 제33집 (2013. 12.)

논문접수일: 2013. 11. 10

심사완료일: 2013. 12. 06

게재확정일: 2013. 12. 12